



3면

이낙연 전 총리, 미국 유학마치고 귀국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음 5월 9일) 제3291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이란 슬로건으로 25일 전주 엔터테인먼트센터에서 6·25전쟁 제73주년을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도민 등 참석자들이 만세삼창 및 제복 착용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6·25전쟁 제73주년 기념행사 거행

'위대한 헌신 존경·감사'

안보결의·제복착용식·대회사·노래 합창 등 진행
이달 민·관·군 협업 전자사 유가족 집중 찾기 나서

전북도는 6·25전쟁 제73주년을 맞아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이란 슬로건으로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는 행사를 가졌다. 25일 전주 엔터테인먼트센터에서 치러진 이날 행사는 6·25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등을 모시고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안보결의대회 및 위포공연을 시작으로 2부 본식에서는 △국민의례, △제복착용식, △유공자 포상, △대회사, △6·25노래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복착용식에 참여한 6·25참전유공자 회원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유공자들에게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새로운 제복을 지급받게 돼 기쁘고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바치신 6·25참전유공자의 헌신을 가슴에 새기겠다"며, 또한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발전에 이바지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존경과 최고의 예우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6월 호국보훈의 달 한달간 '민·관·군 협업 6·25전자사 유가족 집중 찾기'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제35보병사단을 방문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있는 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재훈 기자

재난안전산업 육성·기술개발 주도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추진

전북도, 2026년까지 예산 180억원 투입

국가 재난안전산업 선도 계기 '주목'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을 주도할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국에서 처음 추진되는 사업만큼 전북도가 국내 재난안전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지난 23일 군산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에서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미정 군산시 부시장, 이규택 전북IP원장 등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지난 5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사업 '행안부 공모에 전국 최우선자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재난안전 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 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제품·기술 연구개발 인증, 판로개척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80억원(국비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군산에 위치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시험동 내에 특수목적 지능형 기계부품 산업을 활용해 침수안전 진흥시설을 조성한다.

또한, 침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침수안전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보고회에서는 사업 추진계획과 목표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업추진에 협업 의지를 밝히며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재난안전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신기술 활용 방안 등도 논의돼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증폭됐다.

도는 본 사업을 통해 산업 매출 증대 등 약 47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178여명의 전문인력 고용 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장비들의 신속하고 효



재난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을 주도할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23일 군산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율적인 실증 및 인증이 가능함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선진화와 관련 기업 집적화 등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전북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사업의 첫 단추를 꿴다는데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라며, "산·학·연·관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전북의 재난안전산업이 전라북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조선왕조실록, 목숨 바쳐 지켜내다

내장산 보존터에 이안행렬 조형물 설치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이하 조선실록)과 태조 어진을 정음내장산으로 이안하는 행렬을 영상화한 조형물이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터로 가는 탐방로에 설치됐다.

정음사는 조선실록과 태조 어진 등을 안전하게 지켜냈던 역사를 기억하고 이를 이안한 안의·손흥록 선생을 기리기 위해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조선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조선실록은 춘추관 성주·충주·전주사교 등 4개 사교에 나눠 보관돼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전주사교를 제외한 사교에서 보관하던 조선실록은 모두 소실됐다.



내장산 탐방로에 설치된 이안행렬 조형물.

고, 전주사교본도 소실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정음의 선비 안의와 손흥록은 같은 해 6월 22일(당시 음력 기준) 실록을 지켜내기 위해 마을 사람 20여 명과 함께 전주사교에 보관돼 있던 조선실록을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겼고, 이후 더욱 협조한 은적암, 비래암 등으로 옮겨가며 1년여간 안전하게 지켜냈다.

/정음=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